

“예쁘게 보이려고 체지방 3%로 줄였죠”



데뷔 4년의 노력 끝에 자신에게 맞춘 듯처럼 KBS 2TV ‘조선로코-녹두전’을 만나 시청자에게 깊이 각인된 장동윤. “흔들리지 말라”는 그의 다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사진제공 | 동아닷컴

고2때 시문학상 받은 문학청년 ‘미지의 영역’ 연기는 할수록 매력 남은 인생 화끈하게 빠지고 싶어요

정말 운명 같은 인생이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장동윤(27)이 TV 뉴스 인터뷰를 계기로 연기자로 데뷔한 지 햇수로 4년이 됐다. 11월25일 종영한 KBS 2TV ‘조선로코-녹두전’에서 여장남자 캐릭터로 뜨거운 주목을 받은 그가 이제 존재감을 막 드러내기 시작했다. 향후 활약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그를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평범한 학생에서 “미지의 영역” 연기자로**
대구가 고향인 장동윤은 사실 약간의 굴곡진 학창시절을 보냈다.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 인문계 진학이 불투명했던 그는 “사춘기를 심하게 앓”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대구 경동초등학교와 동도중학교를 나온 그는 “공부 잘 하기로 동네에서 유명한” 연년생 친형의 도움과 노력에 기대 고향에선 ‘명문’으로 꼽히는 경신고를 나왔다.

“평범한 학창시절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사는 것을 싫어했어요. 안정적인 것보다 불안정한 것, 도전과 모험을 좋아했죠.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 가능성이 낫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연기는 제가 감히 엄두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는데 말이죠.”

장동윤은 성악을 전공한 어머니가 물려준 “유전적 영향”과 독서광인 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면서 시를 쓰는 취미를 얻었다. 고교 2년 시절 ‘현대 시문학 청소년 문학상’의 시 부문 중고등부 금상을 받기도 했다. 또 교교시절 영화 연출에 대한 관심에 시나리오도 “꼬적이며” 미래를 향한 끈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어왔다.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시를 쓰고 있어요. 언제가 시집을 내고 싶은 꿈도 있지만, 본업에 허덕이고 있어서요. 하하! 서른 전에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로망을 지금은 일에 바치고 싶어요. 남은 청춘은 화끈하게 일하며 보내고 싶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장동윤은 진학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을 겪으며 노력의 힘을 알았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라고 한다.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남들보다 잘 하는 건 “노력”이라고 믿어왔다.

‘녹두전’도 그랬다. 여장남자 캐릭터가 주는 인상이 강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현대무용, 승마, 필라테스를 배우며 체지방을 3%로 줄이는 등 몸 만들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는 “유산소 운동시간 없이 웬만한 약속장소는 걸어 다녔다”며 “다섯 시간 정도 걷다보면 몸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했다.

“사전에 연구하고 준비할 게 많았어요. 보여드릴 부분이 많은 캐릭터였죠. 이번에 대중적으로 얼굴을 알리게 돼 성취감도 크고 뿌듯해요. 무엇보다 노력을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요.”

연예인으로서 관심을 받는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그래도 장동윤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한다.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보편)흔들리지 마련”이어서 인터넷도 거의 하지 않는다. 그의 어머니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해주신다고 한다.

“연기에 정답은 없지만 대중의 반응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대중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초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휘둘리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주저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중심을 잡는 연습을 부단히 하려고요. 큰 숙제를 하나 받은 느낌인데, 앞으로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잘 풀어보려고 해요.”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장동윤

▲1992년 7월12일생 ▲2011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재학 ▲2016년 웹드라마 ‘게임회사 여직원들’로 데뷔 ▲2017년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 ‘학교 2017’ ▲2018년 KBS 2TV ‘텐뽕결즈’·연기대상 연작·단막극상, ‘시를 읽은 그대에게’ ‘미스터 셀사인’ ▲영화 ‘뷰티풀 데이즈’ ▲예능프로그램 ‘가시나들’ ‘미쓰코리아’

‘정준영 사태’ 그후…방송가, 출연자 검증 시대 열리나

‘징역 6년 중형’ 엄중한 경고속 KBS 자체 검증제도 실험적 운영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중훈(29)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지난달 29일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중훈(29)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처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범행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의 부재 상황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경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기가수,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

이들은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을 수차례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불법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들로 여러



정준영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해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다. 왜곡된 성의식에 비롯된 특수강간의 죄질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큰 인기를 얻는 가수로서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들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일부 연예인들의 일탈을 넘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의 변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누리꾼이 “저지른 행위보다 형량이 적다”며 비판

적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철저한 출연자 검증 필요”**

올해 초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준영이 과거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물의를 빚은 뒤 불과 3개월의 공백 끝에 방송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 일정기간 자숙하고 복귀하는 방식이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정준영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실행됐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시선도 나왔다.

KBS는 이후 출연자 검증 제도를 만들어 시험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담당 PD와 책임프로듀서·국장과 시청자위원회 등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연예인의 출연이 적합한지 심의한다. 대상은 출연 정지 처분이 해제된 연예인을 포함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이다. 조만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용감한 가수’ 에이톤

20대 여성 성폭행 하려던 외국인 업어치기로 제압해 체포 일등공신



가수 에이톤

가수 겸 작곡가 에이톤(이정현)이 성폭행을 시도하던 외국인 남성을 붙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에이톤은 11월30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30대 외국인 남성을 추격, 체포하는 데 힘을 보탰다. 현장의 인근 건물에 있던 에이톤은 여성의 비명소리에 달려 나와 해당 남성을 업어치기로 제압해 넘어뜨렸다. 경찰이 긴급출동해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미국 출신의 영어강사로, 경찰은 그를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에이톤은 김구봉구, 백지영 등 가수들의 곡을 작곡·편곡했고, 2월 Mnet 예능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6에 출연하고 앨범을 냈다.

유지혜 기자

연예

11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김희애 주연 ‘윤희에게’가 이야기의 힘으로 열악한 상영 환경을 딛고 관객의 지지를 얻고 있다. 사진제공 | 라플픽처스

김희애의 ‘윤희에게’ 상영관 악재란 없다

60곳만 걸려도 매일 4000명 관람 중년여성 잊었던 자아 찾는 과정 공감 SNS서 #윤희야-응원해 독려 열기도

배우 김희애 주연 ‘윤희에게’가 열악한 상영 환경을 딛고 오직 작품의 힘으로 관객을 꾸준히 모으고 있다. 개봉 3주째에 접어들어 하루 상영관이 60여 개에 불과한데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윤희에게’(감독 임대형·제작 영화사 달리기)가 11월30일 기준 독립·예술영화 부문 박스오피스 1위(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를 기록했다. 또 좌석판매율(32.7%)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상업영화를 더한 전체 순위에서도 ‘윤희에게’의 성과는 눈에 띈다. ‘겨울왕국2’ ‘블랙머니’에 이어 새롭게 개봉한 이영애의 ‘나를 찾아줘’ 등과 겨루고 있지만 매일 4000여 명씩 관객을 불러 모으며 박스오피스 8~9위를 유지하고 있다.

상영 환경으로만 따지면 ‘윤희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 하지만 작품에 대한 관객의 반응은 결코 그렇지 않다. 상영 환경의 한계를 딛고 1일까지 9만여 명을 동원, 누적 10만 관객을 앞둔 영화는 저예산 작품의 힘을 의미하는 ‘아트버스터’라는 값진 수식어도 일찌감치 얻었다.

11월14일 개봉 이후 초반부터 관객이 자발적으로 나서 영화를 응원하는 분위기도 장기 상영의 큰 동력이 되고 있다. 1일 현재도 SNS에서는 ‘#윤희야-응원해’라며 작품을 알리는 관객 사이의 독려 열기가 형성되고 있다.

관객은 영화가 안기는 감동과 여운을 꼽는다. 영화는 스무 살 무렵 겪은 첫사랑의 꿈이 깨인 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주인공 윤희가 우연히 첫사랑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울림을 준다. 쿼어 소재도 포함됐지만 그보다 윤희의 성장과 함께 얻어가는 사랑에 관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폭넓은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영화를 선택하고 연기할 때도 소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열연한 김희애도 관객의 지지도 받고 있다.

이혜리 기자 gofi1024@donga.com